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MONTHLY **KOFA**
코파의 **침묵**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5**
2026/10



인니 신임 재무장관, 세금 환급 요건 충족 기업에 세금 환급 약속



인도네시아 신임 재무장관 수아하실 나자라는 기업이 법적으로 환급 요건을 충족한 초과 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아하실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환급받을 권리가 맞다면 환급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국제청(DJP)이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청장 비모 위자안토에게 세금 환급 관리 개선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이 환급 절차와 적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다만 경제 주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청은 규정에 따라 환급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환급금을 기존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하실 장관의 발언은 최근 기업단체들이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기업들은 환급이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돼 운영과 투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 신타 캄다니는 17일 콰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수아하실 장관의 전임자인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임 기간인 지난 1년

간 세금 환급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운영과 확장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 환급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현금이기 때문에 환급 시점에 대한 확실성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회장 아닌디아 노브안 바끄리는 지난 15일 재무부에서 뿌르바야 전 장관과 수아하실 장관의 인수인계식이 열린 뒤 기자들에게 새 재무장관이 경제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장의 신뢰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수아하실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재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모 국제청장은 지난 15일 국제청이 초과 납부 세금 환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환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환급을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규정 28/2026호에 따르면 초과 납부 세金的 사전 환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와 저위험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검토한 뒤 사전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 준수, 체납 세금 유무,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이 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중앙은행 신임 총재, 최우선 과제는 ‘안정’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신임 총재 데스트리 다마얀티(Destry Damayanti)는 고조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성장 지향적인 정책 기조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일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데스트리 총재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장기간 고금리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되는 불확실성이 자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스트리 총재는 취임 후 안정적인 경제가 경제 성장을 위한 여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해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안정을 지키는 것이지만, 어떤 정책 수단이 안정에 기여하고 어떤 것이 성장을 촉진할지 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스트리 총재는 주요국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세가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의 최근 평가와 일치하며, 실제로 선진국의 높은 채권 수익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고금리’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데스트리 총재와 함께 아이다 부디만(Aida S. Budiman) 수석 부총재, 솔리킨 주흐로(Solikin M. Juhro) 부총재도 취임했으며, 이들 세 사람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신임 총재 데스트리 다마얀티(출처=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데스트리, 아이다, 솔리킨의 임명을 지난 1일 승인했다.

데스트리는 지난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단독 후보였다. 전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였던 그녀는 빠리 와르지요 전 총재가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임한 후 총재 대행을 맡아왔다. 빠리 전 총재의 사임은 루피아와 가치 하락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주가지수 부진 속에 이루어졌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2019년부터 중앙은행 부총재로 재직해 온 데스트리의 지명이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성장 지원은 2023년 제정된 금융부문발전 및 강화법(P2SK)에 따른 중앙은행의 포괄적 책무 중 하나다. 이 법은 중앙은행에 금융 안정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그리고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데스트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지급결제 시스템 정책을 결합하여 각 수단을 당면한 경제 상황에 맞춰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스트리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영향력 있고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유지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우선순위 부문에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에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각 부처와 기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취임 후 더 나은 인도네시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붉은색과 흰색(인도네시아 국가 색상 상징) 시너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며, 특히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앙은행이 다른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관/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관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I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인니 정부, 내년 신규 일자리 300만개 창출 목표… 기업·전문가 “야심찬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7년 300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8월 27일 하원 예산위원회(Banggar) 회의에서 2027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57만개~ 349만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 국가예산안의 개발지표에 공식 부문 일자리 비중도 포함했다. 공식 부문 일자리 비중을 올해 37.95%에서 내년 40.81%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뿌르바야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했으며,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가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30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 “상당히 야심차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성장이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실물경제 투자를 더욱 촉진한다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자협회 신따 캄다니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200만~400만명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고용구조가 여전히 비공식 부문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5년 브카시 취업 박람회장엔 몰린 구직자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신따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려면 노동집약 산업을 포함한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은 공식 부문 고용 비중이 61%에 달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환경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고비용 경제’에도 직면해 있다. 물류, 에너지, 금융, 규제 준수 등에 드는 비용이 높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잦은 규제 변경 역시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신따 회장은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단기 및 장기 투자 확대와 신규 인력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협회는 정부에 ‘병행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비용 경제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생

산비 상승에 민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프 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증가한 노동자는 190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57만개의 일자리만 창출하더라도 기존 증가 폭에 비해 상당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는 경제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약 0.25로 비교적 낮은 점도 지적했다. 현재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6%로 창출할 수 있는 추가 일자리는 약 220만개에 그친다는 것이다. 349만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동시에 고용탄력성을 0.36~0.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집약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물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불법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운전자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대

규모 투자가 자본 확대뿐 아니라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대(U) 인구통계연구소의 이 데와 그데 까르마 위사나 소장도 정부의 일자리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1일,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압박을 고려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데와 소장은 결국 더 큰 문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기업이나 노동집약적 기업이 없다면 양질의 일자리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기업과 산업의 사업 확장을 촉진해 기존 노동력을 상당 규모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400만 고용’ 인니 섬유 산업 살린다… 국부펀드 다난타라, 상·하공정 통합 국영기업 신설 추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BPI Danantara)이 침체된 섬유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 산업단지 내에서 원자재(상공정)부터 완제품(하공정)까지 아우르는 신규 국영 섬유기업(BUMN) 설립을 공식화했다.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자카르타 대통령령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기존 부실기업에 단순히 자금을 수혈하는 대신 한 단지 내에 집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독자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섬유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 원단, 염색·가공 등

취약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초기 투자금과 출범 시기는 다난타라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유·제품 산업은 5.6%, 피혁 및 신발 산업은 8.25%의 성장률을 기록해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이번 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단절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문 출처: <https://ekonomi.bisnis.com>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다난타라(Danantara) CEO,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난타라 COO가 화요일(2026년 9월 22일) 대통령궁 단지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TPT) 산업을 논의하기 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주재 내각 수석회의(ratas)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공보실(BPMI Setpres)



PT ALJ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인도네시아 하원, ‘노동보호법안’ 하원 발의 법안으로 전격 가결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및 일자리창출법 후속 조치...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
플랫폼 · 비공식 노동자 포용 및 노동시장 법적 확실성 제고 기대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앞두고 입법 절차 본격화... 재계 · 노동계 균형점 주목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 Wakil Ketua DPR RI Cucun Ahmad Syamsurijal. (Foto: YouTube TV Parlemen)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번 가결은 향후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 전반의 법적 틀을 재편하고,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전원 찬성으로 하원 발의 법안 확정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목요일(2026년 8월 27일) 수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보호법안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원내 전 정당 교섭단체(Fraksi) 대표단이 본회의 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에게 서면 소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어 의사봉을 이어받은 추촌 아흐마드 삼수리잘(Taufik Basari 등 원내 지도부) 하원 부의장이 참석한 의원들을 상대로 제9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의 하원 발의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참석한 모든 하원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동의합니다”라며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식 하원 발의 법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본회의 심의 및 최종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현재 결정 이행 및 세부 조항 보완 거쳐

본회의의 전날인 수요일, 하원 입법위원회(Baleg)는 법안 발의 주체인 하원 제9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 위원회는 법안의 조문화 정합성 검토를 비롯해 종합 및 법안 개념 구체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제9위원회가 최초 마련한 노동보호법안 초안은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였다. 그러나 입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6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82조 등 5개 조항에 걸쳐 총 6개 항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한층 더 정교화됐다.

아울러 원내 합의를 통해 경과 규정을 담은 제258조A와 부칙의 제261조A 등 2개의 신설 조

항이 새롭게 삽입되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일자리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의 위헌 심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공식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 반영

하원 제9위원회의 푸티 사리(Puti Sari) 부위원장은 이번 노동보호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다.

푸티 부위원장은 정합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완성도 높게 보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생태계 내 모든 주체의 이해관계를 거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역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법안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가 경제(Gig Economy)의 확산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고용 형태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존 노동 규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확실한 법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푸티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에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명문화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개정된 노동법(제13/2003호)을 비롯해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는 점도 이번 단행법 제정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재계와 노동계의 균형점 모색...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주목

‘노동보호법안’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고용 창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재계와 노동조합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법안은 고용 관계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수요와 국가 경제 발전의 궤를 같이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의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회장은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균형 잡힌 본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무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고용 기회의 확대가 보호 개념의 중요한 일환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사안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026년 10월로 예정된 최종 법률 제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노동법안에 대한 논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노동보호법안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고,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포스트]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1 1369 4992
Kakao ID 6shg10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프라보워, 집권 2주년 앞두고 추가 개각 시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에서 발언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 폐북 갈무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오는 10월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관 교체만으로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경제·정치·법 집행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서부자바 함발랑 사택에서 원로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권 2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년이 지나면 각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각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각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책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패 수사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개각

이 이뤄질 경우 능력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여러 차례 내각을 개편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을 교체하고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차관을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개각으로 집계됐다. 수아하실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와 푸르바야에 이어 프라보워 정부의 세 번째 재무장관이다.

추가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최근 하락한 국정 지지율도 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81.2%에서 올해 7월 51.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제와 정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개각에는 정치적 제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 페르난데스 자카

르타 국제전략연구소(CSIS) 연구원은 여권을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인사들이 내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당 지도부에 속한 장관들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으로서는 총선법 개정 등 향후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립정부 내부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아 연구원은 개각이 여론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자바르 스트라티직 인도네시아의 아리프키 차니아고 연구원도 장관 평가 기준으로 정치적 충성도뿐 아니라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 정책 집행 속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능력을 꼽았다.

평가 대상에는 정부의 우선 정책 성과를 비롯해 경제·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식량·에너지 안보,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집권 2주년을 전후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개각이 단순한 인적 교체에 그칠지, 아니면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 운용 방식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
카카오 ID : rickyoon

LG CNS, 인도네시아 국세청 감사패 수상... ‘코어텍스’ 구축·안정화 기여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 사업부장(왼쪽)과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제공.

LG CNS가 인도네시아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텍스’ 구축과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코어텍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이 추진한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이다. 납세자 등록부터 신고, 납부, 환급, 세무조사, 징수 등 분산돼 있던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세무행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LG CNS는 오스트리아의 IT기업 켈리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2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국세청과 협력해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국세청이 시스템 운영을 맡기 시작한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코어텍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세 수

입은 1035조 7000억 루피아(약 79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6%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제활동 회복과 함께 코어텍스를 통한 조세행정 강화와 납세 순응도 향상이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국세청과 함께 코어텍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고도화 사업을 논의 중이다.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LG CNS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0여 년간 코어텍스를 비롯해 경찰청과 재무부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등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부사장)은 “이번 감사패는 코어텍스 구축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디지털 전환 역량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1]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세무법인 호연>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세무는 물론 국제조세,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기업 세무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정,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부동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한국 발생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등 교민분들께서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무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 칼럼이 한국 세법과 국제조세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가상 사례: 김주재 씨 이야기
한국 본사 A사에 근무하는 김주재 씨는 3년 전 회사 발령으로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가족 관계 :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그대로 거주 중이며,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한국을 찾아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 소득 및 자산 :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계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3년째 머물고 있는 김 씨는 과연 한국 세법상 ‘거주자’ 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 일까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르는 핵심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 정의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납세의무의 차이

– 거주자 : 한국 내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비거주자 : 해외 소득은 제외되고, 오직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형성된 자산 규모와 직업은 어떠한지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한국에 살아 있더라도 실질 생활 근거지가 해외로 완전히 이전되었다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 기반이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세법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 앞서 살펴본 김주재 씨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김 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급여 역시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고 있어 국내 생활 관계가 밀접합니다. 특히 파견된 해외지사가 한국 본사의 지사이거나 100% 출자 현지법인 이라면, 위의 ③번 기준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더라도 당연히 한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비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반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만약 김주재 씨가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고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한 뒤, 한국 본사 파견 형태가 아닌 ‘현지 독립 법인’에 정식 채용’되어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면, 국내 재입국 거주 가능성이 낮아져 ‘비거주자’로 판정받을 가

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판정 결과가 갈리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결국 겉보기에 같은 ‘해외 체류/파견’이라 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신분이 180도 달라집니다.

① 가족 동반 여부 : 가족이 한국에 남아 생계를 유지하는지,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는지

② 급여 지급 주체 : 한국 본사에서 원천 지급받는지, 현지 외국계 기업에서 지급받는지

③ 소속 법인의 성격 : 국내 모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또는 지사)인지, 별개 독립 법인인지

김 씨처럼 가족이 국내에 있고

급여도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는 일반적인 주재원은 해외 체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기간 중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처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해외에 몇 년 있었는가”의 일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자산 소재지·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실질과세의 영역입니다. 특히 주재원이나 장기 체류 교민분들 중 본인이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해외 발생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본인의 파견 형태와 신분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 거주기간(183일)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세무상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이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글에 뜬 해병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 람퐁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군 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특수전 훈련’ (8월 18~25일), ‘슈퍼가루다실드 훈련’ (8월 31일~9월 11일)에서 한 해병대원이 쌍방교전 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국제 금리 상승으로 외환시장 관망세



▲미 달러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폐(사진=안따라포토)

외환시장은 10일 신중한 거래 속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국제유가와 글로벌 국제금리의 새로운 상승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엔화의 가파른 강세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잠시 주춤했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선박 공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벌이면서 중동발 에너지 공급 차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글로벌 국제금리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장기 국제를 대상으로 한 바이백(자사채권 재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화는 소폭 반등하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각각 달러당 1.1633달러와 1.3547달러로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7개월 만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던 엔화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엔화는 일본은행(BOJ)의 다음 주 금리 인

상을 앞두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달러당 153.70엔으로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1로, 3주 만의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10일에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11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는 9월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주요 경제지표다.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NA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셸리 올드는 팟캐스트에서 이번 지표들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긴축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9월 18일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한 뒤 2027년 2분기에는 1.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존 예상보다 이른 시점의 인상 전망이다. MUFG의 수석 통화 애널리스트 로이드 찬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다음 정책 방향을 가능할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어 연준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재정적자와 부채 상환 부담이 이미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금요일 예상보다 강한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60%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달러는 0.2% 오른 0.5848달러를 기록했고, 호주달러는 0.7215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중국 역외 위안화는 달러당 6.705위안으로 보합권을 유지하며 약 4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중국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비용 상승 속에 올랐다는 지표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꿈의 운동화’ 나이키, 18년 만에 S&P100서 퇴출

나이키, S&P100 18년 만에 제외
DTC 전략 강화 · 유통망 축소로 시장 점유율 감소
호카 · 뉴발란스 등 경쟁사 성장으로 입지 약화

1980~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 ‘꿈의 운동화’로 여겨졌던 나이키가 미국 초대형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00에서 18년 만에 빠진다.

S&P100은 미국 대형 상장사 500곳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인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위원회가 기업 규모와 주식 거래의 편의성, 업종별 균형 등을 고려해 100곳을 추린 지수다. 엔비디아 ·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메타 등이 포함돼 있다. 8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S&P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정기종목 변경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21일 증시 개장 전부터 나이키 등 4개 종목을 S&P100에서 제

외한다고 밝혔다. 대신 텔레콤 로지스 · 팔로알토네트웍스 · 아리스타네트웍스 · 샌디스크 등 기술 기업 4곳이 새로 들어간다. 위원회가 개별 종목의 제외 · 편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조정은 나이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4일 나이키 주가는 38.4달러로 마감해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179.1달러)보다 약 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2640억달러에서 570억달러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실적도 뒷걸음질 쳤다. 나이키의 매출은 2024회계연도 513억6200만달러에서 2026회계연도 463억9800만달러로 2년 사이 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



이익은 57억달러에서 31억800만달러로 45.5% 급감해 거의 반토막 났다.

나이키의 유통 전략이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나이키는 2017년 자사 온라인몰과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DTC(Direct to Consumer ·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 전략을 본격화했다. 2020년부터는 이 전략을 강화하면서 도매 거래처를 대거 정리하고, 풋락커처럼 여러 브랜드의 운동화를 함께 판

매하는 주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물량도 점차 줄었다.

그러는 동안 호카 · 온 · 뉴발란스 등 신흥 강자들이 매대를 채웠다. 여러 브랜드 제품을 직접 신어보고 비교한 뒤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러닝용품 전문점 등 매장을 찾으면서 이 브랜드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호카의 2026 회계연도 매출은 25억8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고, 온의 지난해 매출은 30억 1400만스위스프랑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뉴발란스도 같은 기간 매출이 19% 증가해 92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의 부진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의 애국 소비가 확산하는 가운데 안타 · 리닝 등 중국 업체가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나이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금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목금형, 특수 칼금형

걸으면 편해보이는데, 아니었다... 오래 걸을 때 피해야 할 신발 5가지



▲장시간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고를 때는 디자인이나 유행보다 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충격을 분산해주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픽셀즈

가을철 단풍 놀이 계획이 있다면, 선선해진 날씨에 걷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발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한다.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는 신발이라도 장시간 걸을 때는 발과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족부 전문의들은 특히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거나 쿠션과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신발, 지나치게 평평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장시간 걷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밀창이 평평한 캔버스화

캔버스나 반스처럼 밀창이 얇고 평평한 기본 캔버스화는 편해보이는 신발이지만, 장시간 걷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족부전문가는 평평하고 지지력이 부족한 캔버스화는 아치 지지와 쿠션이 거의 없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구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 발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장시간 착용하면 발뒤꿈치와 발바닥 아치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의 힘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발이 받는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발뿐 아니라 그 위쪽 관절에도 부담이 전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쪼리는 단거리에만

발가락이 드러나는 쪼리는 여름철이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편리하지만 장시간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신발을 반으로 접었을 때 앞부분과 뒤꿈치가 맞닿을 정도라면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쪼리를 신으면 신발이 발에서 빠지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에 힘을 주어 신발을 붙잡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 발뒤꿈치 통증이나 힘줄 문제, 발가락 변형, 발 앞부분의 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쪼리를 오래 신을 경우 물집이나 피부 자극이 생길 수도 있다.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만큼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레 플랫이 유행이지만...

요즘 유행인 발레 플랫은 얇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옷차림에 어울리지만 발을 지지하는 기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발레 플랫이 일반적으로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해 발의 아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션과 충격 흡수 기능도 부

족해 오래 걸을 경우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수 있다.

발레 플랫을 장시간 착용하면 물집이 생길 수 있으며 발뒤꿈치나 발바닥 아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발 변형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태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딱딱하고 평평한 신발

가죽 끈과 평평한 밀창으로 구성된 미니멀한 형태의 샌들 등 신발은 장시간 걷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밀창이 완전히 평평한 샌들은 특히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발을 디딜 때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신장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킬레스건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면 발바닥 근막을 비롯해 무릎과 엉덩이, 허리 등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따

라서 장거리 보행이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가볍고 얇은 신발보다는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판 족쇄가 아닐까, 하이힐

굽이 높은 신발 역시 장시간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이힐이 발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발 앞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볼이 좁은 하이힐은 발가락이 눌리면서 신경 통증이나 발가락 변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하이힐을 자주 또는 오랜 시간 착용하면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아킬레스건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발 앞부분의 통증이나 발가락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지면서 발목뿐 아니라 무릎, 엉덩이, 허리 등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오래 걸을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장시간 걸어야 한다면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충격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우선 밀창이 지나치게 얇

거나 쉽게 휘어지는 신발보다는 어느 정도 단단한 밀창과 충분한 쿠션을 갖춘 제품이 적합하다. 발의 아치를 받쳐줄 수 있는 구조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볼 역시 중요하다. 오래 걸으면 발이 자연스럽게 붓기 때문에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신발이 좋다. 지나치게 좁은 신발은 발가락을 압박할 수 있다.

신발의 상태도 살펴야 한다. 걸 보기에는 멀쩡하더라도 오래 신은 운동화는 밀창 내부의 쿠션과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매일 걷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밀창이 닳았는지, 쿠션이 지나치게 눌렸는지, 발을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시간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고를 때는 디자인이나 유행보다 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충격을 분산해주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평소 편하게 느껴지는 신발이라도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용도에 맞게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향신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루피아 유지를 위해 더 이상 금리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루피아 환율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BI 금리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연초부터 금리를 최대 100bp 인상했던 이전의 몇몇 결정과는 달리, BI는 이제 통화 시장에서의 도구 강화를 선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헤지 비용을 줄였다.

BI 선임 부총재 아이 다 부디 만(Aida Budiman)은 기준금리 대응은 항상 인플레이션 격차와 산출 격차를 바탕으로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인도네



시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RDG) 결과와 관련하여 그녀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BI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026년 9월 초부터 루피아 가치 하락은 전적으로 외부 요인 때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5.2%로 상승하고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한 것이 포함된다.

한편, BI 총재 데스트리 다 마얀

티(Destry Damayanti)는 현재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제 BI 금리를 5.75%로 유지한 후 헤지 프리미엄 인하 형태의 인센티브를 선호한다.

데스트리는 “그들이 스왑이든 DNDF든 여기에 더 오래 투자할수록... 1년까지 우리는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BI의 최근 결정에 따라 루피아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0.37% 상승한 17,818 루피아를 기록하며 아시아 태평양 신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통화가 되었다. (K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 · 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조명현 신한인니 행장 “단독 성장 한계…M&A 가능성 열어뒀다”

부실 털고 연 20% 성장 시동…리테일 확대해 2030년 자산 30위권 도전



▲조명현 신한인니은행 법인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지난 3~4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치솟은 부실을 털어내고 건전성을 정상화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닦은 만큼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30년 자산 순위 30위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단독 성장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명현 신한인니은행(신한인니) 행장의 목소리는 묵직하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본점에서 딜사이트와 만난 조 행장은 출범 10주년을 맞은 신한인니가 부실 정리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재 50위권인 현지 은행 자산 순위를 2030년 30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중장기 카드로 M&A 가능성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았다.

올해 7월 신한인니 행장으로 취임한 조 행장은 1995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뒤 신한은행인도본부와 신한베트남은행, 글로벌사업본부를 두루 거친 글로벌 금융전문가다. 특히 신한베트남은행의 성장기를 현장에서 이끌었던 경험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이력으로 꼽힌다. 조 행장은 2016년부터 2년간 신한베트남은행 여신심사부장을 맡았고, 2018년부터 3년간은 지점장으로 현지 업무를 직접 뛰었다.

그가 베트남에서 근무한 기간 신한베트남은행의 순이익은 2017년 말 470억원 수준에서 2022년 1979억원까지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베트남 신화’를 이끈 조 행장이 지난 7월 넘겨받은 신한인니는 수년간 이어온 부실 정상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였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2020년 5.7%까지 치솟았던 고정비 하역신(NPL) 비율은 지난해 말 3.75%, 올해 7월 말 2.10%까지 낮아졌다. 기존 부실채권을 회수·정리하는 동시에 신규 부실을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조 행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건전성을 회복한 신한인니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는 “한국계 은행이 동남아 시

장에 진출해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실”이라며 “지난 수년간 기존 부실에 대한 강도 높은 회수와 추가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단독 성장엔 한계” … 2030년 30위권, M&A도 선택지 신한인니가 세운 목표는 공격적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105개 상업은행 가운데 자산 순위는 56위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BSI 3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외형과 수익을 매년 2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성장 방식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지 국영은행 3곳과 최대 민간은행 BCA 등 빅4가 자산과 여신 등 주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천개의 점포와 탄탄한 수신 기반을 보유한 현지 대형은행과 외국계 중소형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 단기간에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조 행장의 판단이다.

조 행장은 “수많은 해외 사업을 겪어봤지만, 외국계 은행이 단독으로 점포를 내고 로컬 대형 은행과 경쟁해 30위권으로 올라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M&A도 중장기 성장의 선택지로 열어뒀다. 당장 현지 은행 인수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핀테크 채널링과 리테일 확대 등 현재 추진하는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뒤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도약이 필요할 경우 M&A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 행장은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핀테크 채널링 등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과 외형 양면에서 확실한 결과값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축적한 현지 사업 노하우를 지렛대 삼아 향후 성장 전략을 M&A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대출 90% 쏠림 낮춘다… 리테일·카론으로 수익 다변화 M&A에 앞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조 행장이 주목하는 분야는 리테일 금융이다. 현재 신한인니 전체 대출 가운데 한국계

기업이 약 50%, 로컬기업이 약 40%를 차지하고 리테일 비중은 10% 수준이다. 기업대출에 90%가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리테일 자산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동차대출(Car Loan)을 꼽았다. 조 행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자동차대출 연체율이 낮다”며 “인도네시아는 땅이 워낙 방대하고 부동산 담보는 부실 발생 이후 처분하는 데 평균 5년 이상 걸려 회수 리스크도 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출은 현지 생활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조 행장은 “인도네시아는 짧은 거리라도 도보용 인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문화”라며 “이 같은 특성 덕분에 리테일 대출금리가 8~9% 수준인데도 신한인니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리테일 자산을 확대하면 기업금융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인니는 자동차대출과 핀테크 채널링 등을 중심으로 리테일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순이자마진(NIM)을 비롯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 행장이 리테일 확대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성장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시 부실이 늘어나면 지난 수년간의 정상화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를 제2의 베트남으로” … 해외사업은 ‘긴 호흡’ 조 행장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인도네시아를 신한은행의 또 다른 해외 성공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현지화와 장기 투자를 통해 대표적인 해외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베트남에서 여신심사와 영업현장을 모두 경험한 조 행장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기적인 관

점의 현지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조 행장은 “인도네시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매우 도전적이고 험난한 시장”이라면서도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인도네시아를 신한은행 해외 사업의 또 다른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실적보다 현지에서 버틸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을 정리하는데 수년이 걸렸듯 새로운 수익모델을 정착시키고 현지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 행장은 “해외 사업은 철저히 긴 호흡과 인내심을 가지고 뚝심해야 한다”며 “한국에서처럼 ‘왜 빨리 안 되냐, 당장 성과가 안 나면 접어라, 줄여라’는 식의 단기적인 잣대로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관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부산 신발 한자리에... 지역기업 20곳 참여 판매전 3400명 찾아

부산시·부산TP ‘완전 신(Shoes)-봤다!’ 개최...
스니커즈·러닝화 등 최대 50% 할인
100년 신발산업 역사부터 스포츠 스타 신발 전시까지...
지역 브랜드 판로 확대



▲17일 부산시청 2층 시민광장에서 열린 ‘완전 신(Shoes)-봤다!’ 부산신발 홍보 판매전 모습. (사진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 신발기업의 제품과 부산 신발산업의 역사를 한자리에 소개하는 판매전에 3400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부산시청 2층 시민광장에서 ‘완전 신(Shoes)-봤다!’ 부산신발 홍보 판매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부산 신발산업의 역사와 경쟁력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 신발기업의 제품 홍보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역 신발기업 20개사가 참여해 스니커즈와 트레킹화, 러닝화, 수제화, 건강기능화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제품별로 최대 50% 할인 판매도 진행됐다. 판매뿐 아니라 부산 신발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도 마련됐다. 신발산업의 역사를 소개하는 헤리티지 전시존과 이대호·서장훈·이동국 등 국내 스포츠 스타 10명의 신발 전시존을 운영했다. 걸음걸이 측정 체험과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포토존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총 3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와 부산TP는 시민과 지역 신발 브랜드의 접점을 넓혀 지역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구매로 연결하는 데 행사의 초점을 맞췄다. 서형필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유산인 신발산업의 발전과 지역 신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스케처스’ 워킹화 신제품 ‘고워크5’ 출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스케처스(SKECHERS)’가 워킹화 ‘고워크5(GO WALK 5)’를 출시했다.

고워크5는 2년 연속 고객사랑 브랜드 워킹화 부문 대상을 받은 스케처스의 고워크4를 잇는 신제품이다.

올해 배우 김고은과 함께 캠페인 ‘신을수록 나누고 싶은 편안함’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랑을 받은 스케처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오래 걷기 좋은 워킹화 ‘고워크5’를 선보인다.

고워크5는 새롭게 접목한 컴포트 필라 테크놀로지(COMFORT PILLAR TECHNOLOGY™)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편안함을 제공한다. 컴포트 필라 테크놀로지는 높은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워킹화 고워크4를 잇는 신제품



반발력을 제공하여 발이 닿는 모든 단계에서 지면 감지와 편안함을 유지시켜주고 장시간 서 있거나 더 많이, 더 오래 걸어도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해준다. 또한 울트라 고(ULTRA GO™) 미드솔의 적용으로 가볍고 반응성이 뛰어난 쿠셔닝과 에어쿨 고가 매트(AIR COOLED GOGA MAT) 인솔로 우수한 통기성 및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외 다양한 고워크5 시리즈들도 19추동 시즌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슬림은 스타일의 스웨이드, 양모 등 다양한 어퍼 소재로 출시를 앞두고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FASHION POST

드림 키즈·아프리카 협회, 아직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꿈에의 첫걸음에 「드림 키즈·아프리카&스포츠 지원 프로젝트」시동

주식회사 P-UP World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반 사단법인 드림 키즈·아프리카 협회는, 2026년 9월 10일, 도쿄·시부야에서 “드림 키즈·아프리카&스포츠 지원 프로젝트”의 발표 이벤트를 도쿄·시부야에서 개최. 불필요하게 되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슈즈 등을 회수해,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대치를 본격적으로 시동했다.

프로젝트에서는 신발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이들로부터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의 편지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



▲왼쪽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등단한 너머와 타카하시 메리준 씨, 프로젝트 멤버서 더의 하라 신 씨와 기쓰야 테츠지 씨

다. 게다가 현지의 아이들로부터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등을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국

Shoes Post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HOKA, TOR SUMMIT LEATHER TP에 올블랙 마감 적용

매끈한 가죽과 톤온톤 하드웨어, 견고한 Vibram 솔이 완성한 모노크롬 업데이트.

HOKA가 견고한 라이프스타일 라인업에 톤온톤 ‘블랙’ 컬러웨이의 TOR SUMMIT LEATHER TP를 더했다. 거의 모든 부분을 블랙으로 마감한 이 슈즈는 은은한 가죽 광택으로 넓은 토와 측면 패널의 윤곽을 살렸다. 톤온톤 로프 레이스와 블랙 메탈 아일릿, 절제된 힐 브랜딩은 모노크롬 마감을 유지한다.

우븐 텅과 패딩 칼라는 단일



컬러 팔레트 안에 대비되는 질감을 더한다. 절제된 인상은 호트러프리지 않으면서 어퍼에 한층 깊이 있는 시각적 레이어를 만든다.

실루엣은 전통적인 등산화와 연상시키며, 묵직한 하이킹화 프로필과 HOKA의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 지향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실용성 역시 디자인의 중심에 놓였다. 어퍼 하단을 감싸는 보호용 러버 머드가드와 두툼한 쿠셔닝 미드솔이 HOKA 특유의 풍성한 착화감을 뒷받침한다.

그 아래 Vibram® Megagrip 아웃솔은 뚜렷한 러그로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 모두에서 접지력을 제공하며, 강한 텍스처의 솔은 비교적 매끈한 상단 가죽과 촉각적인 대비를 이룬다.

HYPEBEAST

‘국민 편한 신발’ 입지 굳혀... 르무통 ‘메이트’ 200만족 판매

발이 편안한 신발로 유명한 ‘르무통’이 ‘국민 신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르무통을 갖고 있는 기업 우주텍은 르무통의 인기 제품인 ‘메이트(Mate)’가 단일 모델로 누적 판매량 200만족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메이트는 2021년 8월 출시 이후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9월 누적 판매량 200만족을 넘어섰다.

유행 변화가 빠른 신발 업계에서 단일 모델이 오랜 기간



▲르무통 메이트. <우주텍>

소비자 선택을 받으며 누적 판매 200만족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주텍은 가장 큰 인기 비결로 제품의 본질인 편안함을 꼽았다.

르무통은 신발의 편안함을 결정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발을 감싸는 갑피(어퍼)에 있다고 판단하고, 소재부터 원사와 원단 등을 직접 연구·개발해 르무통만의 차별화된 편안함을 구현해왔다.

메이트를 포함한 르무통 전 제품에는 양털 중에 피부 자극이 작고 통기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울로 꼽히는 호주산 ‘메리노 울’을 사용해 개발한 원단 ‘H1-TEX(에이치원텍스)’가 적용된다. H1-TEX는 메리노 울 특유의 부드러움과 통기성은 물론 신축성과 내구성까지 갖췄다.

르무통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지키고, 소비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뉴발란스 983, 강렬한 ‘옐로/레드’ 컬러웨이로 출시



2000년대 초반 러닝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모델은 레이어드 메시 구조와 노출형 AB-ZORB SBS 쿠셔닝을 갖췄다. 뉴발란스가 레트로 러닝화 실루엣에 생동감 있는 컬러를 입힌 뉴발란스 983 ‘옐로/레드’를 공식 공개했다. 여러 겹으로 구성된 이 모델은 노출형 쿠셔닝 요소와 시인성 높은 패널을 통해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의 미학을 드러낸다.

어퍼는 올리브색 메시 베이스 위에 옐로와 라임 컬러

의 구조적 오버레이를 겹쳐 완성했다. 레이스와 안감, 반사 소재 ‘N’ 로고에는 그레이 액센트를 더해 테크니컬한 어퍼 전반의 밝은 톤을 균형 있게 잡았다.

힐 카운터까지 이어지는 실버 화이트 반사 디테일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인성을 높인다. 아웃솔 아래쪽에서는 레드 액센트가 힐을 강조하며, 솔 유닛에 삽입된 노출형 AB-ZORB SBS 쿠셔닝 포드를 감싼다.

조형적인 옐로 듀얼 밀도 미드솔은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고, 레드 트레드 세그먼트로 디테일을 준 다크 그레이 러버 아웃솔 위에 놓였다.

HYPEBEAST

뉴발란스, 990v4 Made in USA ‘네이비/메테오라이트’에 스웨이드 대신 가죽·누벅 적용



가을 시즌을 겨냥한 이번 업데이트는 클래식 러닝화에 한층 질고 고급스러운 소재 구성을 더했다.

New Balance가 출시를 앞둔 New Balance 990v4 Made in USA ‘네이비/메테오라이트’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시즌 모델은 브랜드의 전통적인 부드러운 스웨이드 대신 가을에 어울리는 짙은 가죽과 누벅 소재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990v4 출시작과 달리, 이번 모델의 어퍼는 견고한 가죽과 누벅 소재로 구성했다. 뉴

발란스 네이비를 주조로 한 짙은 블루 컬러가 메시 베이스와 구조적인 패널, 미드솔 유닛까지 폭넓게 물들었다.

어퍼 아래에는 ‘메테오라이트’ 다크 그린 언더레이를 더해 미묘한 대비를 완성했다. 단색에 가까운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톤에 깊이를 더하는 요소다. 이번 소재 변화는 추운 계절을 맞아 프리미엄 Made in USA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New Balance의 계절별 조정을 보여준다.

New Balance 990v4 Made in USA ‘네이비/메테오라이트’는 2026년 9월 24일 New Balance와 전 세계 일부 리테일러를 통해 195달러(USD)에 출시된다.

HYPEBAEST

portlogics®

GLOBAL FREIGHT FORWARDING · INTEGRATED LOGISTICS SERVICE

PORTLOGICS KOREA HQ · PORTLOGICS INDONESI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 세계로, 포트로직스 Unlock your Business

수출입 포워딩, 인도네시아 전역의 B2B 기업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물류의 전 과정을 IT 기술로 연결하는 디지털 포워더, 포트로직스는 한국 본사(Portlogics Co., Ltd. · 판교)와 APA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카르타 본사와 스마랑 지점을 거점 삼아 인도네시아 전역을 커버합니다.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연계 운송, 통관·내륙운송과 유통까지 전담 수행하며, BPJPH 할랄 인증(Sertifikat Halal)을 취득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 The Global No.1 Digital Forwarder



HALAL CERTIFIED · BPJPH



수출입 포워딩
해상 · 항공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본사 ·
스마랑 지점

JAKARTA HQ · SEMARANG BRANCH

말레이시아 · 베트남 등
동남아 연계 수출입

SOUTHEAST ASIA CONNECTIVITY

할랄 인증 물류 서비스
BPJPH 인증 취득

HALAL-CERTIFIED DISTRIBUTION · BPJPH

KOREA · GLOBAL HQ
Portlogics Co., Ltd.
포트로직스(주)

Pangyo HQ · Busa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4,
JS타워 11~12층
JS Tower, 184 Pangyoyeok-ro, Seongnam, Korea
portlogics.com

INDONESIA
PT. Konesia Portlogics
Indonesia

Jakarta HQ · Semarang
Menara Kadin, 4th & 5th Floors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2-3
Rasuna Said, South Jakarta, Indonesia
indonesia@portlogics.com

MALAYSIA · APAC HQ
Portlogics Global Malaysia
SDN.BHD

Petaling Jaya HQ · Kota Kinabalu · Johor Bahru
Block A, A-7-02, Oasis Square,
2, Jalan PJU 1A/7, Ara Damansar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enquiry.my@portlogics.com

VIETNAM
Konesia Portlogics Vina
Co., LTD

Ho Chi Minh HQ · Hanoi
3rd Floor, Lutaco Building,
173A Nguyen Van Troi Street, Ward 11,
Phu Nhuan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vietnam@portlogics.com

portlogics®

NETWORK

KOREA

INDONESIA

MALAYSIA

VIETNAM

JAPAN

USA

© 2026 Portlogics Co., Ltd. · PT. Konesia Portlogics Indonesia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왼쪽)과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제공.

Song for the Mute와 adidas Originals, FW26 시즌 헤리티지 아이콘을 새롭게 조명하다

오스트레일리아 패션 레이블 Song for the Mute와 adidas Originals가 2026년 가을/겨울 컬렉션으로 다시 만난다.

큰 성공을 거둔 양사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이번 출시에서는 adidas의 스포츠 DNA와 Song for the Mute 특유의 실험적인 미학, 그리고 '슬로 디자인' 철학의 조합을 이어간다.

이번 시즌 협업은 시대를 초월한 Samba OG SFTM-010과 새롭게 선보이는 SL 72 PRO SFTM-011, 두 클래식 모델을 재해석해 선보인다. 여기에 통일감 있는 의류 및 액세서리 캡슐 컬렉션도 함께 구성했다. 컬렉션은 절제된 모노크롬과 어스 톤 팔레트를 바탕으로, 날 것의 질감과 소재 대비,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유목적 스타일을 강조한다.

아이코닉한 실루엣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접근을 더한 Samba OG SFTM-010은 클래식 로토피를 해체적인 감각의 다재다능한 스테이플로 탈바꿈시킨다.

이번 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접히는 주름진 힐로, 손쉽게 슬립온 물처럼 신을 수 있다. 어퍼는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 오버레이를 고급스럽게 조합했으며, 미니멀한 브랜딩과 클래식한 Three Stripes 윤곽을 따라 더한 톤온톤 스티치가 특징이다.

신발의 헤리티지를 기리는 전통적인 반투명 검술로 마무리한 Samba OG SFTM-010은 세련되면서도 활용도 높은 'Black', 'Brown', 'Green' 세 가지 절제된 어스 톤 컬러웨이로 출시된다.

Samba의 편안한 무드와 조화를 이루는 SL 72 PRO SFTM-011은 빈

티지 러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부한 텍스처의 모델이다.

전통적인 슬림 프로필을 한층 끌어올린 이 모델은 두툼하게 쌓아 올린 로커 미드솔을 적용했으며, 어퍼에는 우븐 패브릭 베이스와 프리미엄 스웨이드 오버레이를 섞은 패치워크풍 구조를 사용했다.

로프 레이스와 자연스럽게 바랜 마감은 의도적으로 풍화된 듯한 핸드메이드 감성을 더하며, 하이패션과 일상적 실용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SL 72 PRO는 'Collegiate Green', 'Beige', 'Off White' 로 출시된다.

풋웨어를 완성하는 의류 라인 역시 이러한 장인적 접근을 반영해, 같은 어스 톤과 여유로운 핏, 세심한 디테일을 공유하는 트랙 톱, 트랙 팬츠, 쇼츠, 티셔츠,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KAF V Series

Premium Oil-Free VSD Screw Compressors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